

# KOTRA 「코로나19 비상대책반」 일일 동향 보고

- 8.13(목), 코로나19 비상대책반 -

## 서남아지역본부

### □ 현지 정부 대응 정책 동향

국가 (무역관)	내용				
인도 (뉴델리)	□ 현황 (총 2,396,637명 확진, 66,999명 신규확진, 47,033명 사망)				
	연번	지역	누적확진자	신규확진자	사망
	1	안다만&니코바르제도	1900	136	21
	2	안드라프라데시	254146	9597	2296
	3	아루나찰프라데시	2430	103	3
	4	아삼	68999	4593	161
	5	비하르	90321	3908	416
	6	찬디가르	1751	81	26
	7	차티스가르	13498	569	109
	8	다드라나가르하벨리	1696	43	2
	9	델리	148504	1113	4153
	10	고아	9924	480	89
	11	구자라트	74318	1155	2713
	12	하리아나	44024	797	503
	13	히마찰프라데시	3636	139	18
	14	잡무&카슈미르	26413	482	498
	15	자르칸드	19743	518	197
	16	카르나타카	196494	7883	3510
	17	케랄라	38144	1212	126
	18	라다크	1811	41	9
	19	마드야프라데시	41604	870	1048
	20	마하라슈트라	548313	12712	18650
	21	마니푸르	3982	41	12
	22	미조람	649	-487	0
	23	메갈라야	1179	531	6
	24	나갈랜드	3118	87	8
	25	오디샤	50672	1876	305
	26	푸두체리	6381	481	96
	27	편잡	26909	1020	675
	28	라자스탄	56100	1213	822
	29	시킴	930	17	1
	30	타밀나두	314520	5871	5278
	31	텔랑가나	86475	1931	665
	32	트리푸라	6603	121	44
	33	우타라칸드	10886	454	140
	34	우타르프라데시	136238	4475	2230
	35	웨스트벵갈	104326	2936	2203
	-	총계	2396637	66999	47033
*인도보건복지부 통계 8월 13일 오전 8시 기준					
*음영처리된 지역은 상위 1-10위에 포함되며, 다수 무역관 인근 및 주재지역					

국가 (무역관)	내용
	<p>○ 인도 코로나19 일일 신규확진자 수 역대 최다 기록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금일(13일) 기준 인도의 코로나19 신규확진자 수는 6만6천9백99명으로, 15일 연속 5만 명을 넘어서며 역대 최다 일일 확진자 수 기록</li> <li>- 州별 완치자를 제외한 현재 확진자 수로는 마하라슈트라州가 14만7천8백20명으로 가장 높았으며, 뒤이어 안드라프라데쉬州가 9만4백25명으로 2위</li> <li>- 반면 인도의학연구협회(ICMR)에 따르면, 인도의 12일(화) 기준 일일 검사 수는 83만3백91건으로, 이 또한 역대 최다 수치 달성</li> </ul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*Livemint <a href="https://bit.ly/31LUmYn">https://bit.ly/31LUmYn</a> 08.13</p> <p>○ 오디샤州정부, 역내 9개 의료센터에서 코로나19 검사 개시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금일(13일) 현지 언론에 따르면, 오디샤 정부는 역내 코로나19 검사 확대를 위해 6개의 지역주요보건소(UPHCs), 3개의 지역사회보건소(UCHCs)를 포함한 총 9개의 의료센터에서 코로나19 검사 신규 개시</li> <li>- 州정부는 해당 의료센터에서 무료로 검사를 진행하며, 추후 7개 의료센터 추가로 코로나19 검사 규모를 대폭 확대할 계획</li> </ul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*Hindustantimes <a href="https://bit.ly/2XYEAs1">https://bit.ly/2XYEAs1</a> 08.13</p> <p>○ 아삼州정부, 10월부터 가구 당 매달 1천 루피 보조금 지급 계획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12일(수) 아삼州 보건복지부는 역내 가구에 의약품 및 생필품 구매 지원의 일환으로 매달 1천 루피의 보조금을 현금 지급 계획 발표</li> <li>- 단, 해당 보조금의 수급 대상자는 가족 중 여성구성원만 해당되며, 향후 축제·자연재해 등의 특수 상황에 따라 보조금 인상 및 인하 가능</li> <li>- 州정부는 오는 16일(일)부터 보조금 수급 대상 가구를 선정 후 10월 2일(금)부터 순차 지급할 계획이며, 대상 범위를 현재 170만 가구에서 향후 250만 가구로 확대 예정</li> </ul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*Livemint <a href="https://bit.ly/3iCeUJq">https://bit.ly/3iCeUJq</a> 08.13</p>

## □ 주재국 현지기업 동향

국가 (무역관)	내용
인도 (뉴델리)	<p>○ 인도정부, 자금세탁 관여 중국기업 전격 조사 착수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12일(화) 인도 세무당국은 공식 발표를 통해 자금세탁에 연루된 일부 중국계 및 관련 기업에 대한 긴급 조사를 단행했음을 발표</li> <li>- 세무당국은 조사 결과 개인 요청에 따라 40개 이상의 은행 계좌가 유명회사의 이름으로 개설되었으며, 그간 약 1억3천4백만 달러의 크레딧을 획득한 것으로 파악</li> <li>- 발표된 성명에는 조사 시점 및 대상 법인 종류 등에 대한 구체적 정보가 적시되어있지 않았으며, 연루 기업 또한 미공개</li> </ul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*Reuters <a href="https://reut.rs/2POy7v7">https://reut.rs/2POy7v7</a> 08.11</p> <p>○ 셸(Shell), 90억 달러 규모 현지 석유화학 프로젝트 지분 매입 계획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12일(수) 현지 언론에 따르면, 세계 주요 석유기업인 셸이 인도 나야라 에너지(Nayara Energy)의 석유화학 프로젝트에 대한 지분 50%를 매입하며 인도 시장 내 거점 확대 계획</li> <li>- 해당 프로젝트를 통해 구자라트州 소재 바디나르에 향후 5년간 최대 90억 달러를 투자하여 연간 1백80만 톤 규모의 스팀 에틸렌 크래커 공장 설립 예정</li> <li>- 양사는 지난 6월 합작투자 설립을 위한 양해각서(MoU)를 체결한 바 있으며, 공동 협력을 통해 식품 포장재 개발 및 급증 수요 충족 목표</li> </ul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*Business Standard <a href="https://bit.ly/3iB1nBT">https://bit.ly/3iB1nBT</a> 08.12</p> <p>○ 바이트댄스(ByteDance), 릴라이언스와 틱톡 투자유치 논의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금일(13일) 현지 언론에 따르면, 틱톡의 모기업인 바이트댄스와 릴라이언스가 지난 7월 말부터 틱톡 투자 관련 협상 돌입</li> <li>- 현재 틱톡의 인도 사업부 가치는 약 30억 달러로 책정되었으며, 릴라이언스의 지분 소유로 틱톡은 사용자 2억 명 규모의 인도 시장 내에서 자리를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</li> </ul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*Techcrunch <a href="https://tcrn.ch/33UijWd">https://tcrn.ch/33UijWd</a> 08.13</p>

□ 현지 진출 국내기업 동향

국가 (무역관)	내용
인도 (뉴델리)	<p>○ 한국화이바, 인도 국방부 산하 공기업과 철도차량사업 계약 체결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12일(수) 관련 업계에 따르면, 한국화이바와 인도 국방부 산하 중장비 건설업체 BEML이 계약액 250억원 규모의 철도차량 458량 (뉴델리 80량, 뭄바이 378량)수출 계약 체결</li> <li>- 해당 계약액은 전년 매출액(1천7백25억원) 대비 14.5%에 해당하며, 금번 계약으로 동사의 인도 철도차량 누적 수주는 1천량 돌파</li> </ul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*연합뉴스 <a href="https://bit.ly/31MOLAP">https://bit.ly/31MOLAP</a> 08.12 *경남매일 <a href="https://bit.ly/2DFZZiR">https://bit.ly/2DFZZiR</a> 08.13</p> <p>○ 현대차 인도법인, 현대 모빌리티 멤버십 프로그램 출시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금일(13일) 현지 언론에 따르면, 현대차는 모비스(Mobis), 셸(Shell), 베단투(Vedantu)등 다양한 브랜드와 제휴하여 혜택을 제공하는 단일 플랫폼인 모빌리티 멤버십 프로그램 도입</li> <li>- 현대차는 해당 멤버십을 통해 소비자 요구사항 해결, 운영 솔루션 제공 등으로 만족도 제고 목표</li> </ul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*ET Auto <a href="https://bit.ly/2E0SjHq">https://bit.ly/2E0SjHq</a> 08.13</p>
방글라데시 (다카)	<p>○ 한국도로공사, 파드마(Padma)대교 운영·관리업체로 선정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금일(13일) 현지 언론에 따르면, 지난 11일(화) 방글라데시정부 경제위원회는 한국도로공사를 파드마대교 유지보수 및 통행료 징수 업체로 선정</li> <li>- 방글라데시 교량청(BBA)과 한국도로공사는 '19년 9월 대교 운영 및 유지보수 관련 상호협력 양해각서(MoU)를 체결한 바 있으며, 파드마대교는 오는 '21년 6월 완공 예정</li> </ul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*The Daily Star <a href="https://bit.ly/30S93Kf">https://bit.ly/30S93Kf</a> 08.13</p>

## □ 현지 비즈니스 환경 변화

국가 (무역관)	내용
인도 (뉴델리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인도정부, 납세 혜택을 위한 ‘투명 과세제도’ 플랫폼 도입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금일(13일) 인도 정부는 조세 개혁의 일환으로 준수 완화, 신속한 환급 처리 및 모범 납세자 혜택 등을 위한 플랫폼인 ‘투명 과세제도 (Honoring the Honest)’ 도입</li> <li>- 인도 국세청(CBDT)은 최근 몇 년간 직접세 간소화 및 법인세를 기존 30%에서 22%로 인하하는 등 다각화된 조세 개혁을 진행 중이며, 이와 동시에 동 플랫폼 운영으로 효율적인 납세자 지원 목표</li> </ul> </li> </ul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*Economicstimes <a href="https://bit.ly/2PNNOTh">https://bit.ly/2PNNOTh</a> 08.13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인도정부, 화학비료 사용량 절감 위해 바이오 비료 구매 의무화 검토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12일(수) 현지 언론에 따르면, 인도정부는 화학비료 사용을 지양하기 위해 우레아(Urea) 구매 시 바이오 비료 또한 필수로 구매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음</li> <li>- 정부는 또한 최대 40%의 영양소를 보존하고 물 사용량을 50% 감소시킬 수 있는 물방울 배합(drip-fertigation) 방식 등을 육성하는 등 과도한 화학비료 사용 억제 및 농업 분야 부흥 목표</li> </ul> </li> </ul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*Economicstimes <a href="https://bit.ly/3kDqQwl">https://bit.ly/3kDqQwl</a> 08.12</p>
인도 (벵갈루루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인도 2020년 경제성장률 -4.5% 전망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던 앤 브래드스트리트(Dun &amp; Bradstreet) 보고서에 따르면, 인도의 2020 회계연도 경제 성장률은 -4.5% 전망. (‘21년은 6.3%)</li> <li>- 현재 인도는 주정부의 예상치 못한 봉쇄조치로 인해 수요가 지속적으로 줄고 있으며, 그로 인해 업체들의 제조 및 공급에 대한 불확실성도 커지고 있음.</li> </ul> </li> </ul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* The Economic Times, 8.11.</p>